

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

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91호 2019년 6월 12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△Tel.+82-51-797-4665 Fax.+82-51-797-4659 △총괄: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△감수:길광수 명예연구위원 △편집:김영지 연구원

주요내용

통계로 보는 북방(p.2)

- 카자흐스탄 내륙수로 물동량 급감

이슈페이퍼(p.5)

- 극동지역 및 연해주 남부지역 내 거점으로서 나선 항만의 역할(번역)

주요 동향(p.22)

• 동부(p.22)

- FESCO·RZD Logistics, 공동 철송 서비스 개시

• 중부(p.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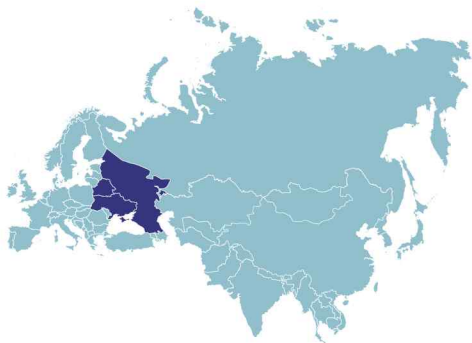
- 아제르바이잔 바쿠 신항, 경유 화물에 치중...여객수송 제고 및 비료터미널 가동 계획 수립 중
- 울란바타르-다르항 간 임시 도로 건설 착공

• 서부(p.2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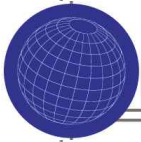
- 세레멘쎬보 공항, 2단계 화물터미널 확장 추진

주요통계(p.30)

-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가격(2019.04.22.~28.)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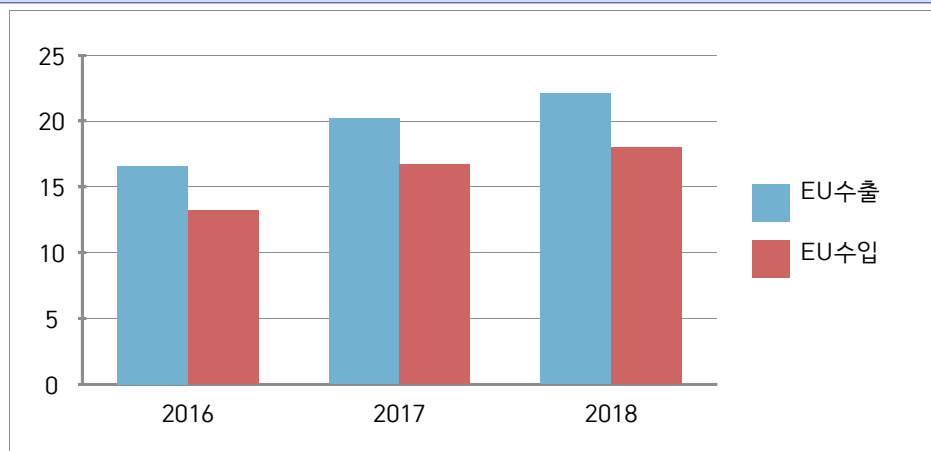
통계로 보는 북방

■ 우크라이나, 대 EU 무역량 증가를 통한 대러 수출손실 극복 나서... 흑해-아조프 해에서는 러시아와의 긴장 지속

- 스테판 쿠비프(Stepan Kubiv) 제1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6월 3일 우크라이나 국회(Verkhovna Rada) 본회의 대정부 질의시간에 대 EU 수출 성과 발표 및 자유무역지대 협력 체결에 관해 발언했음
 - 쿠비프 부총리는 “EU와의 자유무역지대 조성에 관한 협약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, EU를 러시아 시장에서의 손실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거래 파트너로 만들었다”고 발언했음
 -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42.6%로,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. 작년 우크라이나의 대 EU 상품수출 비중은 15%이상을 차지했으며, 22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 반면 대러 무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.7%로 감소했음
 - 한편 부총리는 현재 경제부가 아시아, 아프리카 국가 등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수출입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, 2016-2018년 캐나다, 이스라엘 등 기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사안에 대해 언급했음

2016-18 EU기준 대 우크라이나 수출입 규모(상품)

(단위: 10억 유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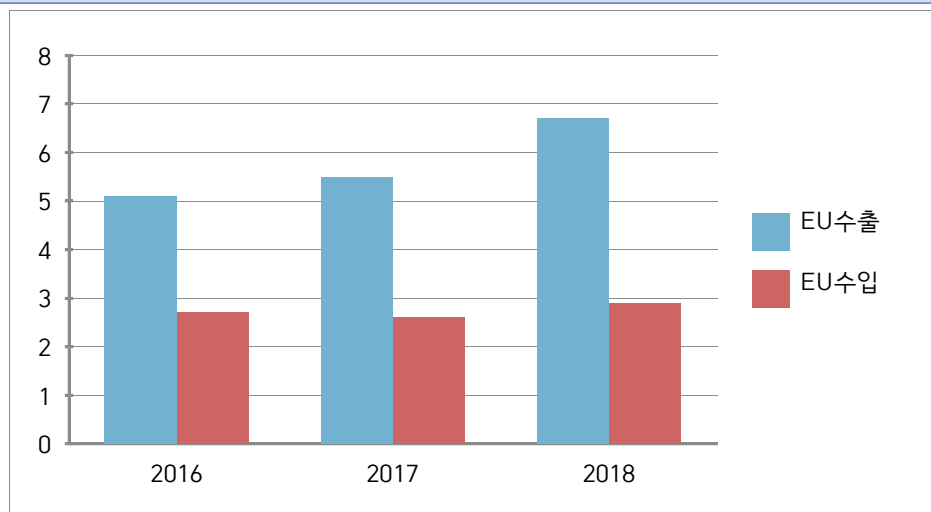
자료: European Commission 2018



- 우크라이나의 대 EU 무역거래 증가는 전통적인 경제협력 대상국이었던 러시아와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음
 - 2018년 11월 25일 크림반도 케르치 해협(Kerch Strait)에서 있었던 러시아 해양경비대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나포 사건을 계기로 양국은 흑해 및 아조프 해 지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음
 -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 측은 나토 해군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했음
 - 2019년 6월 기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문제는 네덜란드 헤이그(The Hague)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음

2016-18 EU기준 대 우크라이나 수출입 규모(서비스)

(단위: 10억 유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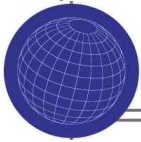
자료: European Commission 2018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maritimebusinessnews.com.ua/%d0%b3%d0%be%d0%b4%d0%b8%d0%bd%d0%b0-%d0%b7%d0%b0%d0%bf%d0%b8%d1%82%d0%b0%d0%bd%d1%8c-%d0%b4%d0%be-%d1%83%d1%80%d1%8f%d0%b4%d1%83-%d0%b2%d1%96%d0%b4%d0%b5%d0%be/2019/06/03/>(검색일: 2019년 6월 4일)

<http://ec.europa.eu/trade/policy/countries-and-regions/countries/ukraine/>
(검색일: 2019년 6월 5일)

조용성 현지리포터(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)

+7 981-198-65-06, mirinae2929@gmail.com



이슈페이퍼

■ 러·중 수교 70주년, 극동지역에서의 협력

- 2019년 6월 5일 러·중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짐
 - 중국 시진핑 주석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이웃국가로 협력·상생의 모범이 되었으며 각 분야의 협력 체계가 완벽하다고 평가함¹⁾
 -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솔직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재 러·중 관계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함²⁾

러시아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



자료: <http://kremlin.ru/events/president/news/60672/photos/59296>(검색일: 2019년 6월 9일)

1) <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19060521174233945>(검색일: 2019년 6월 6일)

2) <http://www.1sn.ru/229309.html> (검색일: 2019년 6월 6일)



- 지난 4월 26일 제 2회 ‘일대일로’ 베이징 국제포럼에서 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 지역과 중국 동부지역간의 협력 및 개발을 위한 라·중 간담회가 개최됨
 - 본 회의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양국 간 무역·경제관계를 위한 국경지역 인프라 건설, 개발 프로젝트 내 파트너십, 농업분야 협력, 러시아 북극지대 공동프로젝트 실현 등에 대해 논의함
 -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 유리 트루네프는 지난해 9월 개최된 동방경제 포럼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극동지역 무역, 경제 및 투자 협력개발 프로그램을 체결하였으며 프로그램은 현재 순조롭게 실행되고 있다고 함
 - 2018년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교역량은 약 28% 증가하였으며 교역액은 약 97억 달러를 기록함

극동연방관구 대중국 수출입액(2015년~2019년 3월 누계)

단위: 천달러

| 구분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년 3월까지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수출 | 3,882,711 | 3,850,384 | 5,080,584 | 6,440,767 | 1,299,263 |
| 수입 | 2,503,299 | 2,280,600 | 2,690,922 | 3,360,819 | 855,839 |

자료: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е Таможенное Управление, Таможенная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, 2015-2019.031 <http://dvtu.customs.ru>(검색일: 2019년 6월 9일)

-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 45개 프로젝트에 중국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며 총 투자액은 약 26억달러임
 - 이는 극동연방관구 총 외국인 투자의 약 63%를 차지함
 - 이 외에도 약 178억달러 상당의 35개 투자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
 -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통해 약 5만 7,000명의 중국인들이 극동연방관구로 들어오기 위한 전자비자를 받음



극동연방관구 외국인 직접 투자액(2011년~2017년)

단위: 백만달러

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
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951 | 563 | 1,392 | 5,055 | 7,077 | 10,385 | 8,157 |

자료: **РОССТАТ, Регионы России. Социально-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- 2018 г.,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**, http://www.gks.ru/bgd/regl/b18_14p/Main.htm(검색일: 2019년 6월 9일)

- 2018년 11월 러시아 대통령령에 따라 2019년부터 부랴티야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경이 극동연방관구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극동개발에 관한 투자 정책 등이 적용됨
 - 현재 부랴티야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경의 첫 번째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되었으며 17개 입주기업들이 약 2,000억루블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
 - 이와 같이 2개의 연방주체를 극동연방관구로 이전한 것은 선도개발구역 등의 투자정책을 통해 지역투자매력을 높여 중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함임
- 2018년 8월에 개최된 제 2차 러·중 정부간 회의에서 중국 후춘화 부총리는 러시아 극동·바이칼 지역과 중국 동북지역 협력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함
 - 양국 전문가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
 -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극동지역 무역·경제 및 투자협력 개발 프로그램과 러시아 극동·바이칼 지역과 중국 동북지역 농업개발계획을 체결함
 - 러·중간 국경지역 인프라 건설도 꾸준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러·중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자금도 출범됨
 - 후춘화 부총리는 양국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해야한다고 함
- 올해 2월 러시아 대통령 블라지미르 푸틴은 북극지역 개발을 위해 극동북극 개발부로 정식명칭을 바꿈
 - 현재 러시아는 북극항로 화물 취급 및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북극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지원제도 도입 제안서를 준비 중이며 제안서가 준비되는



되로 러시아 대통령 및 연방 정부가 검토할 예정임

-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 유리 트루네프는 북극지역 개발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함

■ 극동지역 러·중간의 협력은 농업부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

- 2018년 극동연방관구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약 18억 4,000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극동연방관구의 총 농산물 수출의 약 49%를 차지함
- 러시아는 대중국 농산물 수출을 계속해서 확대할 전망이며 수출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러시아 극동·바이칼 지역과 중국 동북지역 농업개발 계획을 세웠으며 2018년 11월에 양국은 유제품 및 가금류의 상호공급을 위한 프로토콜에 서명함
- 중국은 이미 극동기업을 포함한 약 90개의 러시아 업체에 대해 유제품 및 가금류 공급을 승인함

■ 현재 러시아 연방 농업감독국(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)과 중국 세관총국은 러시아산 사탕무박, 콩, 유채, 해바라기 등의 곡물 및 펠렛 형식의 잔유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식물위생 조건을 협의 중이며 협의된 프로토콜 초안은 러시아 연방정부에 제출 될 예정임

- 극동연방관구는 콩 수출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하바롭스크 변경, 프리모리예주, 자바이칼 변경, 아무르주, 유대인 자치주에서 중국으로 수출됨
- 2024년까지 극동연방관구 콩 수출량은 약 2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- 이외에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3년간 약 100만톤이 중국으로 납품될 예정임
- 이와 같이 중국이 러시아산 친환경 식료품을 수입함에 따라 약 10%의 브라질산 및 미국산 식료품이 대체 가능하며 이는 연간 약 10억달러를 절감함

■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 유리 트루네프는 양국 간의 극동지역 협력 사례로 중국 투자자들의 농축산 프로젝트를 소개함

- 중국 'Power China'사, 러·중 지역개발기금, 극동투자유치 및 수출진흥공사는



자발이칼 변경 곡물터미널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 합의서에 서명함

- 본 투자는 약 8년간 총 6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단계에서 2~6대의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, 시운행할 계획임
- 또한 중국으로 농산물 및 원자재 운송을 위해 도로 및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자 함
- 우선 1단계, 2단계 개발계획이 논의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: 1단계(3년)에서는 연간 약 800만톤의 환적처리 능력을 가진 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임, 2단계(2년)에서는 터미널 환적량을 연간 약 1,2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임³⁾

- 중국의 'Harbin Dongjin Group', '중국항만건설'사, 극동투자유치 및 수출진흥공사는 곡물 운송을 위한 내륙수운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함

- 'Harbin Dongjin Group'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가장 큰 농기업으로 극동 5개 지역⁴⁾에서 투자 개발을 계획함
- 본 프로젝트에는 농작물 재배, 아무르강 곡물전용터미널 건설, 농산물 저장시설 건설 등이 포함됨
- 농작물 재배를 위해 약 100억루블이 투자될 계획이며 인프라 개발에는 약 150억루블이 투자됨
- 'Harbin Dongjin Group'은 농산품 운송을 위해 하바롭스크 조선소에서 바지선을 매입할 예정임
- 올해 9월까지 2개의 선석과 약 20,000m² 면적의 저장창고를 건설할 계획임⁵⁾

- 올해 연말부터 라·중간 국경 가스관 연결이 완료되어 '시베리아의 힘(Power of Siberia)' 가스가 공급될 예정임

-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서방국의 경제 제재 조치로 에너지 수출 노선의 다변화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 중국과 30년간 약 4,000억달러 규모의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함⁶⁾

3)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1869/>(검색일: 2019년 6월 9일)

4) 하바롭스크, 니콜라옴스크-나-아무레, 콤소몰스크-나-아무레, 블라고벤스크, 니즈네레니스크,

5)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1912/>(검색일: 2019년 6월 9일)



- 다년간 계획, 준비한 가스공급이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양국 간 상호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
- 또한 이번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공동 성명서를 비추어보아 연료 및 에너지 복합단지, 투자, 혁신, 디지털 경제, 우주산업, 항공산업, 농업, 세관 등⁷⁾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작용될 것으로 봄
 - 이번 정상회담에서 라·중 정부는 현대 장비, 핵심 노하우 개발, 전문분야의 생산 발전 등 주요 부문에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으며 북극개발에 상호협력 의사를 표명함
 - 양국은 서로 공동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할 것으로 봄
 -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양국은 서로의 경험 및 역량을 교환, 강화해야 하며 형식적인 협력이 아닌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결과를 배출하는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win-win할 수 있는 관계를 도모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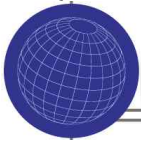
■ 참고자료 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1868/>(검색일: 2019년 5월 31일)

김은미 현지 리포터(국립극동교통대학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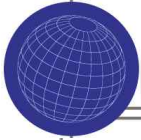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

6) https://www.1tv.ru/news/2019-06-07/366539-v_sankt_peterburge_proveli_energeticheskiy_rossiysko_kitayskiy_forum(검색일: 2019년 6월 9일)

7) <http://www.1sn.ru/229309.html>(검색일: 2019년 6월 9일)



동부권역 주요 동향



중부권역 주요 동향

■ 몽골 철도, 아시아-유럽을 연결하는 통과운송회랑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

- “트랜지트 몽골(Transit Mongolia) 2019” 포럼이 지난 수요일(5일) 울란바타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
 - 금년 3회차를 맞는 본 포럼은 몽골 정부와, 도로개발부, 몽골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투자한 울란바타르철도사가 주관하며, 금번 포럼은 울란바타르철도사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
 - “트랜지트 몽골-2017” 포럼은 중국 베이징에서, “트랜지트 몽골-2018” 포럼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각각 개최되었음
 - 금번 포럼에서는 “울란바타르 철도 용량 확장과 이웃 국가와의 협력” 및 “울란바타르 철도 통과운송의 현황 및 개발 방향”이라는 주제로 진행됨
- 지난 두 번의 포럼의 결과 몽골 지역의 통과운송규모는 5배가량 증가
 - 지난 포럼의 결과 2016년 167회였던 철도 통과 횟수는 2017년 556회, 2018년 855회로 급격히 증가함
 - 향후 통과운송 시간을 감소시키고, 운송 규모에 따른 세율을 조정하며, 국경 통과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 진행
 - “울란바타르 철도 개선 및 발전-2030” 프로그램을 비준하고, 2020년까지 수송량을 연간 3,170톤으로 확대하는 목표 설정
 - 통과 운송량의 증가를 충당하기 위하여 준바얀(Zuunbayan)-한기(Khangai) 방향의 철도 국경 검문소를 설치하여 현재의 수요를 충당하고자 함
- 본 포럼을 통해 몽골의 수입 및 수출량도 증가하기 시작
 - 1947년 중국과 러시아 간 맺은 “협력” 회담을 통해 나우시키(Haushki)-울란바



타르 간 400km 철도 건설을 시작하고, 2년 내 완공한다“고 언급한 뒤, 1949년 2월 ”울란바타르철도“협회 개설

- 2012년 2,040만 톤이었던 총 수송량은 2018년에 2,580만 톤으로 증가했으며, 그 중 수입 수송량은 2017년보다 21.5%(280만톤), 수출 수송량은 2017년보다 21.5%(930만톤), 통과 수송량은 2017년보다 8.9% 증가했음

트랜지트 몽골(Transit Mongolia) 2019 포럼



자료: <https://news.mn/r/2147158/>(검색일: 2019년 6월 11일)

- 몽골의 통과 운송, 통과 여행객, 통과 무역은 몽골에게 국가 재정에 수입원으로 작용할 것임
 - 몽골의 중국, 러시아간 총 무역 거래액은 곧 2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임. 그중 중국과의 거래액은 100억 규모에 달함. 이러한 수요시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철도의 개선작업이 최우선으로 요구됨
 - 철도 노선뿐만 아니라 도로 통과 운송 개선 작업도 함께 수행할 예정. 다르항(Darkhan)-울란바타르 간 204km, 날라이흐(Halaikh)-울란바타르 간 20.9km 도로를 새롭게 건설 중

■ 참고자료 : news.mn (검색일: 2019년 6월 11일)



신민선 리포터(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)

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



■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지역,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

- 지난 5월 15일,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(Shavkat Mirziyoyev)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나보이(Navoi) 지역을 2030년 1월 1일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법령에 승인함
 - 경제자유구역(Free Economic Zones)은 자유무역지역(Free-trade Area)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며, 고부가가치 산업 및 전문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환경을 제공함
 - 또한 외국 투자자 유치와 수출 지향적 산업의 비중이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혁신적인 발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이 예상되고 있음
 - 나보이 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1월 1일까지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며, 이후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표함
 -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나보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새롭게 시행 될 투자 프로젝트들이 기술집약적이며 수출 지향적이라 전망한다면서, 추후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
- 나보이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발전 방향은 지정학적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핵심이 있음
 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첨단기술 부문의 장려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가진 수출지향형 제품군 생산을 위해 최신 인프라를 지원함
 - 화학제품 및 건축 자재 생산을 위한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, 원자재 가공이 용이한 환경을 제공함
 - 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, 귀금속 생산라인을 구축함
 - 중앙아시아 역내 기업들의 협력을 통해 첨단 제품 생산을 현지화 하는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고, 대규모 물류센터를 설립함
- 나보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기존보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것임
 - 기업들은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토지세, 소득세, 법인재산세, 관세 등이 면제됨

- 통관 수수료를 제외한 원자재 및 구성품, 산업 재건축 자재 등 통관 시 관부가세가 면제됨
- 아울러 내달부터 나보이 경제자유구역에 경제활동을 위해 오는 기업들에게는 특수 비자 발급 혜택이 주어짐

나보이 경제자유구역 모식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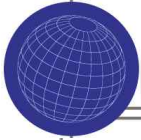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O'zbekiston Savdo-Sanoat Palatasi (검색일: 2019년 6월 5일)

참고자료 : UzDaily.com (검색일: 2019년 6월 5일)

오상호 리포터(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)

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



서부권역 주요 동향

■ 중국발(發) 도로운송 국제소포는 우랄세관에서 통관 진행

러시아 연방 우랄관구 내 스베르들롭스크주



자료: 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A%B0%EB%9E%84_%EC%97%B0%EB%B0%A9%EA%B4%80%E A%B5%AC 바탕으로 필자 작성 (검색일: 2019. 6. 5)

- 러시아 세관 당국의 개편에 따라 중국발 물류의 통관 절차 변화
 - 도로를 통한 중국발 국제소포는 우랄 세관에서 통관하게 되고, 그 외에 중국에서 우랄 연방 관구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들은 스베르들롭스크주의 예카테린부르크 감독 기관을 거치게 됨
 - 2018년 우랄 전자 통관이 시작되면서 중국발 러시아행 국제소포량은 약 675천 톤으로 거래액은 약 14억불에 이름
 - 2018년 하얼빈에서 우랄 세관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온 국제소포 비율은 러시아 전체 국제소포의 약 24%를 차지하고, 이 중 세관에 억류된 물품은 5% 미만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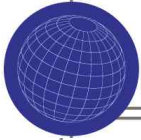
에 따라 하얼빈에서 오는 국제소포는 위험 비율이 낮은 것으로 간주됨

- 예카테린부르크 관세청장 막심 츠모프는 “중국에서 운송되는 화물이 늘어날수록, 통관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 우체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” 이라고 밝힘. 특히 하얼빈에서 도착하는 물품 중 위험 물품들은 전체의 약 2.5% 미만으로 이와 같은 통관 절차의 상호 신뢰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보다 빠른 통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함
- 중국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전체 국제소포의 반(42%)은 전기제품, 23%는 의류, 16%는 장난감이며 나머지는 화장품이 11%, 보석류가 8%를 차지함
- (러중)국제 온라인 거래에서 빠른 배송은 주요한 요소로, 물류적 효율성과 국제소포 거래 노선의 확대뿐만 아니라, EAEU(유라시아경제연합) 국가들의 영토 반입 금지 물품이나 또는 국제 운송이 금지된 물품을 거래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음(카자흐스탄을 경유해서 러시아로 운송되는 경우)
- 2018년 통관 데이터에 따르면 EAEU 세관에 억류된 금지품목은 40만 톤 이상으로 전체 국제소포의 약 0.6%정도에 이름

- 참고자료 : <https://ekb.rbc.ru/ekb/freenews/5ce796f69a7947691ca953b1#ws>(검색일: 2019년 06월 5일)
- <http://np-srv.ru/news/ves-pochtovyy-trafik-iz-kitaya-budet-prochodit-cherez-uralskuyu-tamognyu-.html>(검색일: 2019년 06월 5일)
- <https://news.rambler.ru/other/37549593-made-in-shina-na-uralskoy-tamozhne/>(검색일: 2019년 06월 5일)
- <http://utu.customs.ru/index.php>(검색일: 2019년 06월 5일)

남가영 리포터(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)

neba95@naver.com



주요 통계

2019년 1분기 연해주 주요 수출입품 구조

| 품목 | 합계 | | 해외 | | CIS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수출 | 수입 | 수출 | 수입 | 수출 | 수입 |
| 식료품 및 원자재 | 418,774.9 | 174,858 | 417,942.1 | 173,825.6 | 832.8 | 1,032.4 |
| 광물 | 171,751.5 | 12,408.3 | 171,605.7 | 12,371.6 | 145.9 | 36.8 |
| 연료 및 에너지 | 155,321.8 | 12,178.9 | 155,175.9 | 12,144.9 | 145.9 | 33.9 |
| 고무 및 화학 제품 | 10,286.6 | 96,406.4 | 9,831.5 | 95,490.4 | 455.1 | 915.9 |
| 원료, 모피 제품 | 6.8 | 3,225.6 | 6.1 | 3,100.6 | 0.7 | 125 |
| 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 | 106,321 | 16,105.5 | 106,311.5 | 15,793.9 | 9.6 | 311.6 |
| 섬유 및 신발 | 327.1 | 51,623.8 | 238.2 | 50,687.5 | 88.9 | 936.3 |
| 금속 및 금속 제품 | 33,336.9 | 67,932.6 | 33,298 | 66,598.4 | 38.9 | 1,334.1 |
| 기계류 | 10,721.5 | 470,029 | 9,408.6 | 469,607.7 | 1,312.9 | 421.3 |
| 기타 | 28,662.5 | 65,279.1 | 28,460.9 | 64,923.8 | 201.6 | 355.2 |
| 합계 | 780,188.9 | 957,868.3 | 777,102.6 | 952,399.7 | 3,086.3 | 5,468.6 |

■ 참고자료 : http://dvtu.customs.ru/index.php?option=com_content&view=article&id=26445:-----1--2019-&catid=293:2017-04-12-04-40-20&Itemid=311 (검색일: 2019년 6월 11일)

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(KMI 러시아연구센터)

7-914-345-3947, aquillar7@gmail.com